

석사학위논문

기독교 창작 무용
「마르지 않는 샘」에 대한 연구

2025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이 은 경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영애

기독교 창작 무용
「마르지 않는 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hristian Creative Dance
「the Never-Drying Spring」

202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기독교무용전공

이은경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영애

기독교 창작 무용
「마르지 않는 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hristian Creative Dance
「the Never-Drying Spring」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기독교 무용 전공

이은경

이은경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김 남 용 (인)

심 사 위 원 안 신 희 (인)

심 사 위 원 박 영 애 (인)

국 문 초 록

기독교 창작 무용 「마르지 않는 샘」에 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이 은 경

본 연구는 기독교 창작 무용 「마르지 않는 샘」에 대한 분석 연구이며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목마름에 대한 작품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생수로 비유해 영혼의 공허함과 허무감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생수’라는 영적 매개체를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루고자 하였다. 지난 시절 어두운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감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참된 쉼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불안감들이 물질주의와 탐닉으로 정신적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몸을 병들게 한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상태를 뜻한다. 죄로 인한 영적 타락은 거짓과 욕망, 물질이나 명예, 그리고 권력 등 다양한 외적 요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친다. 이러한 행위는 내면의 문제를 외면하게 하고 본질적인 삶의 의미와 깊이를 떠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본 작품에서는 ‘생수’라는 영적인 의미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표현하였고 예수님만이 인간 내면의 갈증과 욕구의 존재론적인 필요 즉 사랑의 의미와 회복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구원의 본질임을 강조하였다.

어떤 사랑으로도 내면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모티브로 하여 근본적인 영혼의 해갈이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자 하였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상처로 가득차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사랑의 예수님을 이해할 때, 우리의 불안과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였으며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남을 고찰하였다. 물을 구하러 온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로 본인을 소개한 예수님처럼 쉼 없이 생수를 찾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해결책인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영혼 구원과 증인된 삶의 중요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 작품 「마르지 않는 샘」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요시간은 16분 52초이다. 짜임새 있는 구성과 메시지 전달에 중점을 두었고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을 모티브로 하여 무용극과 같은 스토리 전개와 한국 창작 무용으로 안무하였다. 작품의 주제를 잘 전달하기 위해 주제와 어울리는 음악과 감정 표현을 위한 조명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관객들이 생수와 회복 그리고 구원이라는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안무자의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게 각 음악의 선율과 조명의 변화는 관객들에게 작품의 핵심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1장은 하나인 영, 혼, 육이 서로 다른 욕구와 현실속에서 분리되어 혼란을 겪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하나이지만 서로 다른 움직임을 통해 갈등을 표현하였고 다른 소매 색깔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어둡고 톤 다운된 자주색 의상과 쇠사슬에 묶여 끈을 나타내는 패턴으로 디자인하였다.

2장은 고통으로 쓰러져 있는 여인을 구원하고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강한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날개짓 하는 주요 동작의 효과를 주기위해 실

크로 만든 의상의 효과를 사용하여 동작의 느낌을 극대화 시켰다.

3장은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은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였다. 밝은 노란색 의상을 사용하여 누에고치에서 나비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로 구성하였다. 음악은 미성의 맑고 깨끗한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과 빛을 연상하는 느낌을 주었으며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빠르고 경쾌한 동작으로 안무하였다.

연구자는 「마르지 않는 샘」을 통해 목마름, 회복, 구원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고 공허와 목마름으로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구원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 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주요어 】 기독교 무용, 물질주의, 중독, 예수님의 정체성, 생명수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차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
제 2 장 현대인의 정체성 혼란	5
1) 물질주의	5
2) 중독과 탐닉	6
3) 정체성 혼란	7
제 3 장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성	9
1) 생명수	9
2) 생명의 떡	11
3) 빛	13
4) 양의 문	14
5) 선한 목자	17
6) 부활과 생명	18
7) 길과 진리와 생명	20
8) 참 포도나무	21

제 4 장 작품 개요	23
-------------------	----

제 1 절 안무 의도 및 작품 내용	23
---------------------------	----

제 2 절 작품의 형식 및 구조	25
-------------------------	----

제 3 절 작품의 구조 및 구성 요소	30
----------------------------	----

제 5 장 작품 분석	40
-------------------	----

제 1 절 1 장 : 목마름	40
-----------------------	----

1) 내용 및 안무 의도	40
---------------------	----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42
----------------------	----

3) 무대장치 및 조명	43
--------------------	----

4) 음악	44
-------------	----

제 2 절 2 장 : 마르지 않는 샘을 찾아서	44
---------------------------------	----

1) 내용 및 안무 의도	44
---------------------	----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45
----------------------	----

3) 무대장치 및 조명	46
--------------------	----

4) 음악	47
-------------	----

제 3 절 3 장 : 구원과 영생의 길	47
-----------------------------	----

1) 내용 및 안무 의도	47
---------------------	----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48
----------------------	----

3) 무대장치 및 조명	49
--------------------	----

4) 음악	50
-------------	----

제 6 장 결 론	51
참 고 문 헌	53
부 록	56
ABSTRACT	57

표 목 차

[표 4-1] 영적 싸움과 관련된 성경 말씀	62
[표 4-2] 목마름에 관련된 성경 말씀	92
[표 4-3] 구원에 관련된 성경 말씀	03
[표 4-4] 작품의 구조	23
[표 4-5] 음악	3
[표 5-1] 무대의 구역 구분	14
[표 5-2] 기호와 경로 색	14
[표 5-3] 1장 세부 분석	24
[표 5-4] 1장 조명	34
[표 5-5] 2장 세부 분석	54
[표 5-6] 2장 조명	64
[표 5-7] 3장 세부 분석	84
[표 5-8] 3장 조명	94

사 진 목 차

[사진 4-1] 무용수 의상 1 (앞면, 뒷면)	4 3
[사진 4-2] 무용수 의상 2 (앞면, 뒷면)	4 3
[사진 4-3] 무용수 의상 3 (앞면, 뒷면)	5 3
[사진 4-4] 무용수 의상 4 (앞면, 뒷면)	6 3
[사진 4-5] 무용수 의상 5 (앞,면 뒷면)	7 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언제나 고민하는 존재이다. 그러기에 스스로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자신의 근원적 존재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성경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영적 타락의 존재가 된 인간은 끊임 없이 자신을 욕망, 물질, 명예, 권력으로 채우고자 하는 갈망과 목마름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인간은 이런 내적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으로 선택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은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랑과 인정으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마름은 인간 존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남으로 회복되어 질 수 있는 영적 목마름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4:14)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갈망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며, 예배를 통해 나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한다. 즉 예배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길을 의미하며 예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남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안겨 주며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는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하나님을 대신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들이며, 우리의 존재를 실감하게 하고, 나의 가치를 드러나게 하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를 불러 가치 있는 존재로 택하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그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이유 때문이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다섯 남자에게 안전감과 사랑을 찾아 떠나는 여인,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과 조롱받은 여인,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아서 남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여인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묻고 싶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신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고질적인 허무와 목마름의 문제를 안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교회는 발맞추어 기독교 문화 사역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문화적 역할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최근 교회에서도 문화예술 콘텐츠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용과 찬양, 뮤지컬, 연극, 드라마,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교의 현장과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각 교회에서는 예배 무용팀들을 조직하여 국, 내외 선교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민족을 위한 복음화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죄를 짓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그때 비로소 인간과 하나님 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며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어 결국, 묶였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기독교 무용의 영(spirit), 혼(soul), 육(body)의 치유를 통해 영혼이 회복되는 역할을 한다. 기독교 무용은 몸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욕망과 아픔, 상처, 기쁨, 환상, 소망과 갈망을 토대로 저절로 호흡 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몸은 영, 혼, 육이 하나되어 몸의 언어인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기쁨의 제물이 되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기독교 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질주의와 중독, 탐닉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사람들은 허무와 공허를

채우려는 방법으로 술, 마약, 섹스, 그리고 과도한 인터넷 쇼핑에 의존한다.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으로 그들의 감정을 달래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킨다.

기독교 창작 무용 「마르지 않는 샘」은 하나님을 떠나 죄로 단절되어 목마름과 허무감으로 방황하는 여인이 생명수 되신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목마름이 해소되고 삶의 정체성과 의미를 찾는 작품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정체성 혼란에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마르지 않는 샘」에 대해 분석한 연구로서 2024년 11월 18일 PM 7:00 양재 M 극장에서 공연한 석사학위 청구 논문이다.

제 2 절 연구 방법 및 절차

이 연구는 비디오, 영상, 사진 등을 통한 분석 연구로서 영상 자료 외에 문헌도 참고로 하고 있다. 생수란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표현하였고 예수님만이 인간이 가진 내면의 갈증과 욕구의 존재론적인 필요 즉 사랑, 의미, 목적 등의 해답이며 구원의 본질임을 강조하였다. 사마리아 여인을 모티브로 하여 인간의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알리고 있다. 죄로 단절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설명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으로 나타낸다. 생수의 개념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려는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현대인에게 해결책인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 「마르지 않는 샘」은 요한복음 4장을 모티브로 하여 인간의 목마름과 허무함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작품의 개요에 대해서 형식과 구조, 내용, 음악, 조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셋째, 작품의 각 장마다 안무 의도와 세부 분석, 무대장치, 및 조명에 대한 설명과 움직임의 구성 요소 등을 설명하고 분석하였다.

넷째, 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와 느낀 점, 아쉬운 점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 2 장 현대의 정체성 혼란

1) 물질주의

물질주의는 철학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인간의 존재와 경험을 물질적 요인에 의해서 설명하고 접근하는 것이다. 즉 물질적 생존과 안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돈과 물질이 삶의 기준이 되어 물질의 소유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결정되며 이를 삶의 성공이라 의미한다.¹⁾ 물질의 소유와 소비가 개인의 행복과 성공을 결정 짓는다고 의미하여 20세기 중반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글로벌화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²⁾ 현대인의 물질주의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으며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복잡한 현상이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는 단순한 생존 행위를 넘어서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소비가 개인의 가치와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로 인식이 되며,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소비로 욕구를 충족시킨다. 미디어의 광고와 발달은 소비문화를 인스타그램, 유튜브, 플랫폼이 유행하면서 ‘인플로언서 문화’는 소비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물질의 선호도는 사회적 명성과 수단으로도 작용한다. 물질의 소유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더욱 두드러지며, 소비를 통한 사회적인 소속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 가치 중심의 삶은 심리적 불안감과 고립감을 초래하고 물질적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줄 것으로 믿지만 실상은 소유의 증대가 행복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이는 현대인의 삶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면서 ‘미니멀리즘’과 같은

1) 이보영. (2019).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가치 차원에서의 한국인 세대 간 차이”.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P.16.

2) 이진석. (2018). “왜 물질주의가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높이는가?”. 소비문화연구. p.72.

사조는 물질적 소비를 줄이고 관계, 경험, 개인의 발전 중심에 방식을 찾고 물질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물질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가치를 탐구하는 기회이며 물질적 소유를 넘어서 의미 있는 필요성을 느낀다.

2) 중독과 탐닉

중독은 일반적으로 특정 물질이나 행동에 대한 강한 의존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물질적 중독에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중독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극심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현대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비물질적 중독은 정보 기술의 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미디어 중독 등은 현대인들이 빈번하게 경험하는 형태의 것이다. 이러한 중독은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고립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대인의 중독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지만 주요 원인은 사회적 압박감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성공, 인기,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경쟁적인 구도에 있기 때문에 중독적 행동으로 표출된다. 또한 심리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 심리적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독적 행동에 빠진다. 쇼핑이나 게임은 일종의 탈출구가 되어, 잠시 좌절감이나 공허감을 잊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문제를 악화시킨다. 특히 인터넷은 이제 하나의 문화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이 우리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지만, 역기능적 문제들도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등교 거부, 장기결석, 건강 악화, 생활과괴, 사회생활 위축, 성격 변화,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의 혼돈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³⁾

탐닉 또한 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대 사회의 두드러진 현상이며 물질적 소비가 개인의 행복과 자기 확신을 주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탐닉

3) 전종국. (2009).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유”. 한국 카운슬러협회. p11.

의 정의로는 의존성과 쾌감의 추구로 나타난다. 쾌감의 추구는 대상을 통해 즉각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를 의미하며 과도한 소비를 하는 것이다. 소비문화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데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디지털 탐닉은 소셜, 미디어, 비디오 게임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를 의미한다. 이 또한 사회적 고립과 불안을 악화시킨다. 탐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와 불안이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사회적 성취감이 인간의 압박과 불만족을 초래한다.

현대인들의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음식 탐닉으로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의 홍수 속에서 맛있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다. 중독과 탐닉은 생산성과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로움과 고립의 감정도 점점 커진다. 중독과 탐닉은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중독된 행동을 인식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사회적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정체성 혼란

정체성은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의하는지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내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회적인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현대인의 정체성 혼란은 복잡한 사회적 변화와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얽혀 있는 현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촉발된다. 정보화 사회에서 사람들은 방대한 양의 정보에 노출된다. 정보 통신의 급속적인 발달은 정보의 양과 접근성을 변화시켰고 다양한 경계를 허물고 문화의 가치가 융합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의 기준이 매우 다양하여 직업적 성공, 사회적 인정, 외모 등에 대한 압박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끊임없이 검증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은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고 압박과 고립감으로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 시대를 반영하는 한병철의 사상은 오늘날 사회를 ‘성과사회’라 지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는 과거의 근대사회를 억압

과 부정으로 특징지어지는 ‘규율사회’로 정의한다. 규율사회에서는 ‘~을 하면 안 된다.’는 규율에 따라 움직인다. “규율사회는 부정성의 사회이다”⁴⁾ ‘성과사회’에서는 ‘성과’가 중심이 된다. 자유주의 이념에 따라 자신과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경쟁의 관계로 부추긴다. 이것은 오히려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옳고 그름의 판단력을 상실하게 한다.

다니엘 벨(Daniel Bell)은 현대인을 개성 없는 다수로서의 대중, 무능한 판단자로서의 대중, 기계화된 사회로서의 대중, 관료화된 사회로서의 대중, 폭도로서의 대중이라 했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현대인을 주체성이 없는 자동형 인간이라 정의하였다.⁵⁾ 현대인들의 주체성과 욕구 상실은 단절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며 고독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에 가치관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삶의 정체성 회복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한병철. (2010).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p95.

5) 윤성현. (2008). “현대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석시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P6.

제 3 장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성

1) 생명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4:14)

구약성경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1:1)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생명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벗어나면 모든 존재는 갈급한 존재가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나타내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 그 존재 스스로가 생명이 되신다.

하나님의 본성이 생명이기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나타낸다. 생명은 물이 없으면 치명적인 것이다.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 결핍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산소 결핍밖에 없다.⁶⁾ 그래서 생명수로서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수라는 용어로 말씀 된다. 그래서 볼프(H. W. Wolff)는 하나님을 호흡의 창조자, 생명의 제공자라고 언급한다.⁷⁾ 이런 의미로 볼 때,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물로 표현되어져 있으며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말한다. 특히 팔레스틴 지역은 기후와 지리적

6) G. J. Wenham, Genesis 1-15 (Texas: Word Books, 1987), 59-61.214) H. W. Wolff, Anthropology of the Old Testament (London: SCM PressLtd., 1981), 117-8.215) 강익재, 강석오, 「성서의 풍토와 역사」 (서울: 종로서적, 1990). 재인용.

7) D. A. Carson, 「요한복음」, 391; 박정식,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인물의 역할 연구,” (서울: 성서유니온, 1993). 재인용.

특성상⁸⁾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은 삶과 죽음을 가늠하는 중요한 역할을 상징하기도 한다.⁹⁾

신약성경에는 물의 의미를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먼저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 물을 사용함으로 회개의 상징을 보여주고,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으며 「마르지 않는 샘」의 주제로 안무를 했던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의 대화를 통한 목마름의 회복을 보여주셨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부분에서 물을 통해 병자를 고치시고 유월절 전날 밤 제자의 발을 씻기실 때도 물을 사용하셨으며, 인류의 구원을 이룬 십자가상의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고자 했던 로마의 창끝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물까지, 성경은 물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한다.

요한복음에서 물의 주된 의미는 생명이다. 인간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순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즉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인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물과 생명의 상징 관계를 사용했다.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물’ 즉 생명수로 언급한다. 이는 요한복음 기자가 물을 생명이란 상징적 의미로 생명, 성령, 씻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¹⁰⁾ 요한복음 4장에서 생명의 물은 흐르는 물이나 샘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 살아있는 물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며, 또한 새 생명, 성령을 상징으로 생수의 역할로서 그 목적이 있다.¹¹⁾ 사람은 몸에 2%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낀다. 그때 물을 찾고 마신다. 그러면 그 갈증은 해결된다. 그러나 그 갈증의 해결은 일시적일 뿐이다.

요한복음에서 물의 상징은 이러한 의미가 아닌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이다.

8) 방안진. (1990). 「파레스틴의 지리」. 서울:대한 기독교 성회, P46.

9) Wai-ye NG, Water Symbolism in John, 76-7, 85-6; 웅(NG) 박명우.

10) 노희원. “구약성서의 중심으로서의 생명사상,” 「신학논총」 4권 (1998): 191.

11) Gerard S. Sloyan, 「요한복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p.176. 재인용.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일시적인 목마름의 해결이 아닌 영원한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 생명수를 인류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4:14)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물은 육체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상징하며 요한복음 7장 37-39절에서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말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설명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의미한다.¹²⁾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공허한 인생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며 세상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다.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영적 갈증의 해소와 예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생명수는 새로운 회복과 출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초가 되어 주셨기에 영적인 재생 즉 거듭남을 상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과거의 상처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예수님 안에서 보며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소망과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리게 하며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2) 생명의 떡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6:35)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 Jones, The symbol of Water in the Gospel of John, 33.225 Culpepper, 「요한복음 해부」, 306-7.226. 재인용.

떡은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게 하듯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며 필수적인 양식으로 언제든지 영적 생명을 얻게 한다.¹³⁾ 떡은 1세기 팔레스틴 지역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음식이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셨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주신 후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그를 따르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존재가 영적인 양식임을 강조하였다.

떡은 생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강조한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회복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 예수님 자신이 곧 영적인 생명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영적인 생명을 의미한다.¹⁴⁾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생명의 떡에 대한 또 한가지 개념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며 성도들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연합의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 이를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항상 땅의 것인 육체적인 양식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적인 가치인 양식을 찾고 자신을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다.

13) 박재우.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독교론과 종말론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P27.

14) 윤승은. 「예수님의 비유들의 연구」, 서울 :성서 연구원, (2003) . p.886.

3) 빛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8:12)

빛은 모든 사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며 빛은 가려진 것들을 선명하게 나타내 준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떠한 어둠도 존재할 수 없다. 빛의 가장 큰 속성은 생명이다.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은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성장하게 한다.

그 의미로 볼 때 성경 말씀 구약에서는 빛을 하나님의 속성 중의 하나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신약에서도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으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직접적 표현을 보여준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으로 묘사하였으며 요한복음에서 빛은 생명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성전 안에 등불이 켜졌고, 횃불 행사가 이어졌다. 이처럼 구약에서의 상징적 의미는 신약에서의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광야에서의 불기둥은 빛 되신 예수님을 상징했으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빛이 되셨다.¹⁵⁾

구약에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나타낸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고백한다. 구약의 이러한 표현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빛은 생명의 원천으로써 예수님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구원을 나타낸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선언하시며 그가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다.

15) 『The oxford Bible Interpreter』, 서울:제자원, 2000. p. 159. 재인용.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둠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로 죄로 인한 인류의 영적 어둠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며 요한복음 3장 19-21절에서¹⁶⁾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를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한 이유를 설명하신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에 대한 반응을 강조한 부분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빛으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의 빛으로 썬의 역할도 하신다. 그를 믿는 자는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준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¹⁷⁾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라고 하시며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서 소망을 준다”라고 하셨으며 이 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¹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빛의 개념은 개인적인 구원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빛의 개념적 존재로 묘사된다. 빛은 예수님의 사역과 사랑을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양의 문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16) 요한복음3: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17) 요한복음12: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 요한복음8: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한복음10:7,9)

신약성경에서 ‘문’은 여러 번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위에 구절은 예수님께서 ‘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신 유일한 구절이다. 예수님은 ‘문’이라는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선언하고 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소리에 주목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가장 안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이다.

팔레스틴 지방은 날씨가 좋은 때를 골라 양들을 방목했고 그럴 때를 대비해 들판에는 곳곳에 가설(假設)을 설치했다. 목자들은 가설 우리에 들어가 양과 함께 잠을 자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설은 우리에 문이 따로 없어서 목자들이 양의 출입구에서 잠을 잠으로써 양들의 문과 문지기 역할을 했다. 따라서 다른 출입자들은 이 목자를 거치지 않고서는 누구도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근동의 목자들은 자신들을 양의 문이라고 불렀다. 양의 문은 양의 목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¹⁹⁾ 그러므로 양의 문이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통로를 의미한다. 그 양의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이며 이 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문’을 통해서만 구원 받을 수 있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선언하며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하셨다.²⁰⁾

양의 문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풍성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바로 예수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이 바른 문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참 의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

19) 『The Charis Bible Commentary』, (서울: 기독지혜사, 2006), p. 229. 재인용.

20) 요14:6. 시118:19-20, 마7:13-14.

도하는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적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진리를 말한다.

구약에서 목자와 양의 이미지는 자주 등장하며 목자와 그 백성 간의 상징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라는 구절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강조한다. 이 맥락에서 양은 신자를 목자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선언하신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요한복음10:7) 이 구절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림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양의 문에서 구원의 길을 제공한다. 이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²¹⁾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제시하고 인류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의 길로 여셨음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²²⁾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깊은 안전감을 주신다.²³⁾ 또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과 모든 민족과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며 이 땅에 사랑을 전하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유일한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28장 19-20²⁴⁾ 에서도 이 사명을 명확하게 전달하신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양들이 나아가는 모든 곳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양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이어진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소통의 메시지가 된다.

21) 요한복음10: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22) 요한복음10: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23) 배충의. (2013).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곱 가지 정체성』.서울: 엘멘출판사, p69.

24) 마태복음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5)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10:11)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지칭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목자라는 개념으로 쓰여졌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심으로 선한 목자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선한”을 뜻하는 “칼로스”는 도덕적으로 선한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아름다운”이란 뜻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흠잡을 것이 없는 참된 목자이심을 나타낸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다. “버린다”의 의미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샅군 목자는 어려움이 왔을 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자신을 위한 길로 선택해 간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자신의 양무리로 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채울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샅군 목자와 자신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²⁵⁾ 양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샅군 목자는 어려움이 왔을 때 먼저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생명까지 주신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든 목적은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목자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희생적으로 양들을 돌본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친밀성을 알 수 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인도하신다. 친밀함과 사랑으로 목숨을 다하여 자신의 양들을 지키는 것이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며 목자 없이 방황하는 자들과 갈 길을 잃은 자들을 위해 생명을 다하여 인도하시는 것이다. 오직 예수만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들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존재로서 예수님의

25) 배충의. (2013).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곱 가지 정체성』.서울: 엘멘출판사. p75.

구속적 사역을 상징한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희생할 각오가 되어져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자가 되시기에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다.

예수님의 희생은 구원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며 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것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호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한복음10:10)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양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강조하신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다.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신성을 강조한 포인트이기도 하다.²⁶⁾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구속자로서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영적 꿀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6) 부활과 생명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한복음11:25)

예수는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는 부활과 생명을 가져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바로 부활이며 생명이신 것이다. 생명이 없이는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이는 생명도 없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과 생명이 오고 있다고 믿는다.²⁷⁾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그 대가로 인류 안에 죽음이라는 벌을 내리셨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원한 죽음이었고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었다.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6) 박명우, (2007),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shmei'on)과 7구절의 “나는...이다”의 자기 선언,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P72.

27) G. R. Beasley-Murray, 『WordBiblical Commentary』, 서울: 솔로몬, 2001, p.410). 재인용.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회복을 이루었다.²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며 자신의 사명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는 고통의 죽음만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증거를 이룬 역사적 사실이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그 이후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부활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구약에서 부활과 생명의 개념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예표로서 기록돼 있다. 이사야 26장 19절과 다니엘 12장 2절²⁹⁾에서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기대는 신약에서의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약속하신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부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 자체임을 드러낸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강조하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요한복음 11장 43-44절에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며 그의 권능을 드러내신다.³⁰⁾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의 주체임을 보여준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으로 부활의 실재를 보여준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신자들의 믿음을 강조하셨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은 믿음이 부활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신자들은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 되심을 믿고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날마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28) 『The Charis Bible Commentary』, (서울: 기독교회사, 2006), p.30498. 재인용.

29) 다니엘12:2.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0) 이사야26:19.“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뿜으리다.”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신자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과 부활 후 삶의 모습 또한 풍성하게 채워 주실 약속의 메시지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구속의 사역을 나타내신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35절에서 새 계명과 연결되어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13:34)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7) 길과 진리와 생명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14:6)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한 시간적 제한 없으며 항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곧 모든 것의 길이 되시며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다.³¹⁾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이며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의 길이 된다. 길을 인도하는 주권자임을 말해주고 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지닌 존

31) 배충의. (2013).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곱 가지 정체성』.서울: 엘멘출판사. p101.

재임을 나타내셨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8:32) 진리를 아는 신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으며 예수님만이 삶의 진리이며 유일한 길임을 증거하셨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비교할 때 예수님의 희생은 궁극적인 길을 제시한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는 말씀과 연결하여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고를 설명한다.

진리는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그가 전한 말씀과 그의 삶은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드러낸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선포는 예수님 안에 인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내시며 역사의 중심 가운데 계시서 영원한 생명으로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의미가 있다.

8) 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한복음15:5)

‘참’이라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뜻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진실된, 참된, 진짜의,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의 근본이심을 강조한다. 예수께서 스스로를 향하여 ‘참된’이란 말을 사용하신 이유는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과 자신이 이스라엘의 참 포도나무가 되심을 대조함으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다.³²⁾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미지이며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며 그들의 불순종과 타락에 대해

32) 구약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종종 비유되어 왔다. (『The Oxford Bible Interpreter』, 서울: 제자원, 2000.).

경고하신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맺어야 하는 관계임을 강조 하였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예수님은 말씀하 신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인류에게 생명과 영적 열매를 제공하는 존재임을 나 타내고 있으며 포도나무 비유는 신자들이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설명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신자들 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신다.³³⁾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 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신자들과 예수님의 깊은 관계를 통해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 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영양분을 흡수하듯 신자 들은 예수님을 통해 서만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다.³⁴⁾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서만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다.³⁵⁾ 포도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요한복음15:5) 신자들 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열매 는 신자들의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 행동, 그리고 복음전파를 포함한다. 예수 님은 신자들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적용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더 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신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더욱 깊이 설명하셨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된 존재가 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³⁶⁾ 그러므 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며 그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게 된다는 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33) 두란노 . (2015). 예수님의 정체성. 서울: 두란노.

34) 요한복음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 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35) 요한복음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 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36) 요한복음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 4 장 작품 개요

제 1 절 안무 의도 및 작품 내용

1) 안무 의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질문은 기독교의 핵심가치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론적 질문의 해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서 우리는 끊임없는 인생의 허무와 공허의 문제에 부딪쳐 망망대해에서 정처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의미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본 작품에서는 제시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고자 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시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인생에서 끊임없는 목마름과 허무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산다. 이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목마름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예수님을 생수로 묘사하여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였고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근원적인 존재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랑, 인정, 관계, 물질, 명예 등을 쫓아가지만 결국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급함을 느끼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는 갈망으로 나가게 된다. 이 갈망은 하나님을 찾는 예배로 우리를 이끌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참 소망과 기쁨을 주며 천국을 향한 성화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

2) 작품 내용

2024년 11월 18일에 공연한 기독교 창작 무용 「마르지 않는 샘」은 요한 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인생의 허무와 공허의 문제를 겪고 있던 여인이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 혼, 육의 끊임없는 고통의 문제와 싸우며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좌절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싸움 속에서도 함께하셨고 여인을 위해서 기다리신다.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은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고 먼저 다가오신다. 사마리아 여인의 고통은 예배하지 못한 목마름이었다. 마음의 문을 연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인 영생을 받으면서 참된 예배자가 된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여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선물로 받은 영원한 생수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준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시록3:20)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옛 자아를 벗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구원과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간다.

제 2 절 작품의 형식 및 구조

1) 1장

기독교 창작 무용 「마르지 않는 샘」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영, 혼, 육이 하나의 한 몸이지만 각기 서로 다른 현실에서 분리되는 것에서 시작한다. 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혼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육은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간다. 영, 혼, 육은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이며 영은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육이 사라져도 존재한다. 혼은 영과 육의 중간 역할을 하며 개인의 정체성과 감정, 생각 등을 의미한다. 혼은 영과도 연결되어 있고 육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간이 살아가고 경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육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요소로 물리적인 몸을 의미한다. 육체는 신체적인 기능을 의미하며 시간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

1장에서는 서로 다른 인간의 현실적인 욕구와 분리로 싸우고 다투게 된다. 영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지만 혼과 육은 세속적인 걱정과 근심, 쾌락과 어둠의 생각으로 여인을 속이고 사망으로 이끈다. 따라서 영, 혼, 육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영적 싸움이 표현되고 있다. 성경에서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다.

[표 4-1] . 영적 싸움과 관련된 성경 말씀

구분	성경 구절	성경 내용
1	고린도후서 11:14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2	베드로전서 5:8-9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3	에베소서 6:11-13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4	야고보서 4:7-8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2) 2장

여인은 본인의 의지로는 도저히 끈을 수 없는 허무와 목마름의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면서 쓰러져 하나님을 찾는다.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깊은 메시지를 나타낸다.

「마르지 않는 샘」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2장 ‘Rescue’ 가사에서 잘 나타난다.

가) ‘Rescue’ 찬양 가사

you are not hidden
너는 가리워져 있지 않단다
there's never been a moment
단 한 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
you were forgotten
너가 잊혀진 듯 보일지라도
you are not hopeless
너에게 희망이 없는게 아니야
though you have been broken your innocence stolen
너의 삶이 망가졌을지라도 널 버린 적이 없단다
I here you whisper underneath your breath
너의 작은 소리를 들었단다
I hear your SOS, your SOS
숨죽인 채 속삭이는 소리 너의 SOS
I will send out an army to find
나는 하늘의 군대를 보낼 거야 너를 찾기 위해
the darkest night it's true
가장 짙은 어둠 가운데로 이게 나의 진심이야
I will rescue you
내가 구해줄게
there is no distance
내가 가지 못할 곳이 없고
that can not be covered over and over
내게서 너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없단다
you're defenseless
너가 보호받지 못하는게 아니야

i'll be your shelter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i'll be your armor
방패가 되어줄게
I will never stop marching
나는 너에게 달려가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거야
to reach you
너를 만나기 위해
in the middle of the hardest fight
가장 힘든 싸움 가운데로 들어갈 거야

여인은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시냇물처럼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생명수가 공급된다. 드디어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린다. 여인은 생명수를 찾아서 믿음의 고백을 한다.

나) 여인의 고백 (낭송)

고통 속에서 이제야 주님을 뵙니다.
주님은 늘 저와 함께 계셨군요
작고 연약한 저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네요
저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저를 찾으시네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깊은 싸움 속에서 저를 구원하셨네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제는 일어날게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목마르지 않아요
늘 마르지 않는 샘물로 내 영혼이 충만해요
저의 소망은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의 사랑을 전하며 살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한 걸음씩 다가간다. 예수님은 여인을 일으키시며 기뻐서 춤을 추신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한 마르୍କ를 찾는 주인의 마음처럼 예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제 여인은 전도자가 되어 여인을 해방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변화된다.

여인의 목마름에 대한 말씀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다.

[표 4-2] . 목마름에 관련된 성경 말씀

구분	성경 구절	성경 내용
1	요기22:7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2	잠언25:25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3	이사야21:14	데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4	이사야55: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 3장

여인은 드디어 죄의 옷을 벗고 거룩의 옷을 입은 기쁨으로 회복과 구원의 춤을 춘다.³⁷⁾ 흰색과 노란색의 그라데이션 된 의상을 입고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를 강조하였으며 누에고치에서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변화를 이미지로 구성하고자 가벼운 실크를 사용하였다. 여인과 무용수들은 구원의 기쁨으로 동역자들과 손에 손을 잡고 즐거워하면서 하

37) 시편30:11.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 우셨나이다.”

나눔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간다.
구원받은 여인의 기쁨에 대한 말씀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다.

[표 4-3] . 구원에 관련된 성경 말씀

구분	성경 구절	성경 내용
1	출애굽기 15:2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2	신명기 20:4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 이며
3	사도행전 2: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4	로마서 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 3 절 작품의 구조 및 구성 요소

「마르지 않는 샘」은 창작 한국 무용으로 구성했으며 목마름과 허무의 문제로 고통받는 여인의 내면 즉 영, 혼, 육의 싸움 속에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목마름이 채워지고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을 얻는다는 내용으로 창작 한국 무용으로 표현하였다. 소요시간은 16분 52초이며 음악과 조명의 변화를 주어서 「마르지 않는 샘」의 내용과 구원의 메시지를 표현하였다.

1장은 영, 혼, 육이 하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용수 세 명이 나란히 앉아서 서로를 의지하고 기대는 동작과 하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 차이 없이 같은 동작의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 명의 무용수가

서로 다른 욕망을 분출하면서 각자 다르지만 하나인 듯 분리되어 여인의 등 뒤에 숨어서 좌, 우의 서로 다른 팔을 내밀고 각자의 욕망에 따라서 분열이 시작된다.

영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하지만 반면 혼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생각하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며, 육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따르기를 원한다.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은 서로 상충하며 갈등을 일으킨다. 혼과 육의 캐릭터적인 움직임을 설정하여 여인을 중심으로 무용수들이 각기 다른 좌, 우 파트의 팔을 이용해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 영, 혼, 육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혼은 생각을 속이는 혼란스러운 소리로 육은 정욕과 음란함으로 표현하였다. 여인은 앞에 놓은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져 다시 일어나보려 하지만, 죄의 속박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쓰러진 채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

2장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여 여인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신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고 붙들고 있다.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 나는 광야의 길과 사막에 물을 내는 하나님이다.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고, 하늘의 날개로 너를 품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여인은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분과 대면하게 된다. 여인은 독백을 하며 대각선으로 서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 치유와 회복을 얻은 여인은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난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여인은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 무릎을 꿇는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을 일으키시며, 한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을 여인과 함께 나누며 춤을 추신다. 이제 여인은 죄의 옷을 벗고 새롭게 변한 모습으로 의의 옷을 입는다.

3장 구원받은 여인이 노란색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밝고 환한 의상을 입고 독무로 기쁨에 춤을 추다가 밝은 의상을 갈아입은 두 명의 무용수가 무대에 들어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들은 서로를 기쁘게 격려하며 손을 잡고, 강강술래처럼 원을 그리며 즐겁게 춤을 추다가 이후, 대각선 방향으로 한 명씩 걸어 나간다.

[표 4-4] . 작품의 구조

구분	움직임의 구조	표현형식	소요시간
1장	- 3인의 무용수가 같은 동작의 움직임으로 구성 - 분리되면서 캐릭터에 맞는 개성적 동작으로 표현함 - 괴로움과 고통의 사실적 동작을 사용함	3인 군무	6:42
2장	- 1인 독무로 부드러움과 강한 동작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함 - 짧고 간결하게 하나됨과 기쁨을 표현함	1인 독무 2인 군무	5:10
3장	- 1인 독무로 기쁨과 회복의 춤을 예쁘고 밝게 표현함 - 3인 군무로 경쾌하면서 밝고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구성함	1인 독무 3인 군무	5:00

1) 음악

1장에서는 무음을 사용하여 분리되는 과정을 표현하였고 무음과 ‘Farewell’ ‘Mother’, ‘가시나무’ 음악을 사용하여 차갑고 냉소적인 음악으로 여인의 고통을 암시했으며 가시나무 전주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끊임없는 내면의 욕구와 죄의 유혹을 고통스러운 몸부림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2장에서는 외국 찬양곡인 ‘Rescue’를 사용했으며 허스키하고 깊은 내면의 울림이 있는 목소리가 2장의 분위기와 맞았고 깊이 있는 가사의 내용과 잔잔하면 굵은 목소리가 깊은 울림이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었다.

3장에서는 ‘Home’을 사용하여 평안하고 잔잔한 음악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선택하였다. 미성의 목소리로 부르는 어린이들의 합창곡으로서 맑고 깨끗한 목소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천국의 빛을 연상케 하는 곡이라 사용하

였다.

[표 4-5] . 음악

구분	음악	시간
1장	무음	1:52
	‘Farewell’, ‘Mother’, ‘가시나무’	4:50
2장	‘Rescue’, 기도문 낭송	5:10
3장	‘Home’	5:00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시냇물이 흐르는 효과음을 사용하여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이미지를 형상화하였고 문을 여는 소리를 통하여 새로운 기대감과 내면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2) 의상

공연 예술에 있어서 무용 의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용수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주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의상의 색상, 디자인, 소재 등이 안무자의 메시지를 잘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대 조명과 함께 의상은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표현과 메시지 전달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의도에 맞는 의상의 질감, 패턴, 색깔, 소품, 장신구 등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사진 4-1] 무용수 1 의상

주인공인 무용수 1 의상은 사마리아 여인을 모티브로 하여서 그 당시의 의상을 응용하여 제작하였고 사마리아 여인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두운 자주색을 사용했으며 묶여있는 패턴의 디자인으로 사슬을 표현했다.



[사진 4-2] 무용수 2 의상



[사진 4-3] 무용수 3 의상

무용수 2, 3은 영, 혼, 욕 이 하나라는 의미로 같은 디자인의 다른 패턴으로 제작하여 무용수 2, 3의 소매를 한쪽씩 다른 색깔로 제작하여서 한 몸이지만 혼과 욕이라는 차별성을 두었고 어둡고 칙칙한 자주색의 톤 다운된 색감을 사용하여 공허와 허무의 느낌을 의상에 주었다. 앞의 거미줄 같은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묶여있는 끈을 나타내었다. 앞 패턴은 영, 혼, 욕이 하나듯이 와인, 네이비, 그레이 색상을 사용하였다.

하의는 현대 무용적인 움직임으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저고리 바지를 사용하여 상징적인 동작에 무용수들이 편안하게 춤을 출 수 있게 하였고 영, 혼, 욕의 내면적인 갈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사진 4-4] 무용수 4 의상

예수님의 의상은 흰색을 사용하여 거룩, 승리, 생명, 죄사함의 의미를 주었으며 예수님의 특징적인 동작의 효과를 주기 위해 실크 소재를 사용하였고 날개짓 하며 품어 주시는 예수님의 특징적인 동작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의는 넉넉한 흰색 쾌자와 여유 있는 저고리 바지를 착용함으로써 움직이기에 편안함을 주었으며 전통적인 디자인과 현대적인 스타일의 혼합된 형태로 세련되게 디자인했다.



[사진 4-5] 무용수 5 의상

3장에서 주인공 1의 의상은 흰색과 노란색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가볍게 날릴 수 있는 실크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구원의 기쁨을 드러내고자 디자인하였다. 또한 애벌레가 누에고치에서 노란 나비로 태어나는 것에 의미를 시각화하였다. 실크는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빛을 잘 반사하여 화사함을 강조하고 움직임에 유연하고 자유로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대적인 느낌의 디자인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3) 조명

조명은 무대의 분위기를 설정하고 색상과 밝기를 통하여 감정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용수의 움직임에 강조하거나 배경을 부각 시키기도 하면서 무대의 특정 부분을 밝히고 관객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무용수들의 동작을 강조하는데 도움을 줌으로 주제와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강화시켜서 관객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1장에서 세 명의 무용수들이 센터 다운스테이지에 나란히 앉아있는 부분은 TOP 조명을 사용하였으며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주었고 분리되어 두 명의 무용수가 상, 하로 굴러가 자리를 잡으면 각각 무용수 위로 다시 TOP 조명이 켜진다.

센터의 여인이 센터 업스테이지로 이동할 때 배경 조명을 추가로 비춰주었다. 좌절한 여인이 일어나 하수에서 센터로 이동할 때 블루조명을 유지해주며 맞물려 예수님이 등장할 때 오렌지색 센터조명과 벽에 그림자가 보이는 풋조명을 추가시켰다.

2장에서는 서 있는 두 명의 무용수가 하수 다운스테이지로 이동하고 바닥에서 두 명의 무용수가 퇴장할 때 사이드를 페이드아웃을 처리한다. 이후 예수님이 등장하여 춤을 출 때 큰 타원형 느낌의 오렌지 조명이 켜진다. 춤을 추고 있는 예수님이 두 손을 들어 올릴 때 풋조명이 추가로 켜진다.

춤추던 예수님이 상수 업스테이지로 이동하면서 물소리가 시작되면 하수 다운스테이지에 엎드려있는 여인에게 TOP 조명과 배경 조명이 켜진다. 여인이 문을 여는 소리가 나면 하수 다운스테이지에 있는 여인이 대각선쪽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센터로 이동할 때 하수 다운스테이지 방향으로 사선 길 조명이 켜진다. 앉아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일으켜 정면을 보고 춤이 시작될 때 좌우 사이드 조명과 다운스테이지 쪽으로 백조명이 켜진다.

3장은 여인이 죄의 옷을 벗어 예수님에게 건네주고 독무가 시작될 때 센터 중심에 큰 TOP 조명이 엠버와 엘로우의 색상으로 켜진다.

이후 무용수 두 명이 하수에서 등장하여 세 명의 무용수들과 함께 춤을 출 때에는 사이드를 페이드아웃으로 처리하고 큰 타원형 느낌의 밝은 엘로우 조

명이 켜진다. 세 명의 무용수가 상수 업스테이지로 손을 잡고 이동하여 한 명씩 하수 다운스테이지로 이동하려 할 때 하수에서 상수 방향으로 사선 길조 명이 켜지고 무용수들이 한 명씩 걸어 나가면서 퇴장하면 서서히 페이드아웃 된다.

제 4장 작품 분석

제목 : 「마르지 않는 샘」

안무 : 이은경

출연 : 이은경, 손수진, 장미희, 최희원

음악 : 1장 'Farewell', 'Mother', '가시나무'

2장 'Rescue'

3장 'Home'

발표 일시 : 2024년 11월 18일 (월) 오후 7시

발표 장소 : 양재 M 극장

작품 시간 : 16분 52초

제 1 절 1 장 : 목마름

1) 내용 및 안무 의도

기독교 창작 무용 「마르지 않는 샘」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영, 혼, 육이 하나의 한 몸이지만 죄로 분리되어 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혼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육은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간다. 영, 혼, 육은 인간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이며 영은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육이 사라져도 존재한다. 혼은 영과 육의 중간 역할을 하며 개인의 정체성과 감정, 생각 등을 의미한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영, 혼, 육의 분리됨으로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의 목마름과 고통을 표현하고 싶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몸부림쳐도 죄의 문제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싶었다. 1장에서는 서로 다른 인간의 욕구와 분리로 싸우고 다투며 영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지만 혼과 육은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 쾌락과 어둠의 생각으로 여인을 속이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여인의 모습에서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표 5-1] . 무대의 구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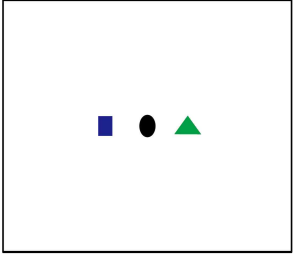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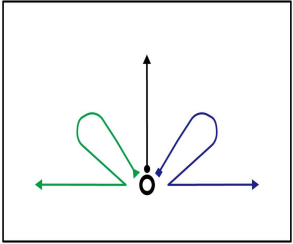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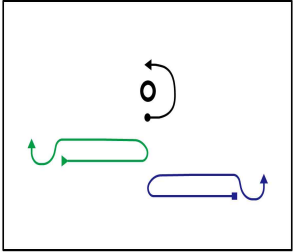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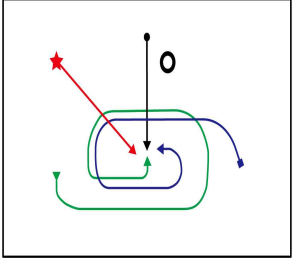
하수		상수
USR(위우측) Up Stage Right	USC(위중앙) Up Stage Center	USL(위좌측) Up Stage Left
CSR(중앙우측) Center Stage Right	CS(무대중앙) Center Stag	CSL(중앙좌측) Center Stage Left
DSR(아래우측) Down Stage Right	DSC(아래중앙) Down Stage Center	DSL(아래좌측) Down Stage Left

[표 5-2] . 기호와 경로 색

구분	기호	경로
무용수1	●	● →
무용수2	■	■ →
무용수3	▲	▶ →
무용수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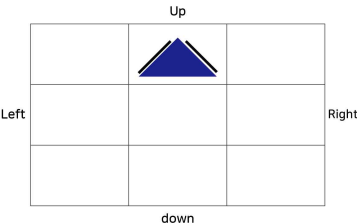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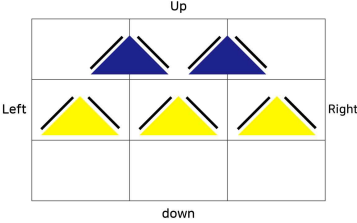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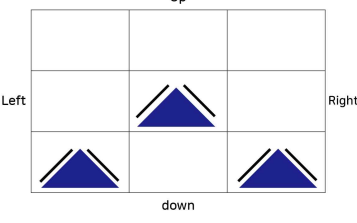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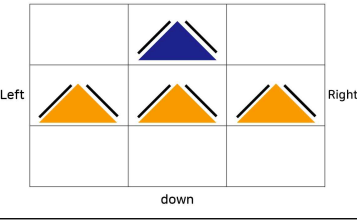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표 5-3] . 1장 세부 분석

장면	내용 설명	플로어 패턴
	3명의 무용수가 나란히 기대고 앉아서 영, 혼, 욕이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동작으로 일체감을 강조한다.	
	좌, 우 두 명의 무용수가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고 혼적인 생각과 욕적인 음란함으로 여인에게 다가와 거짓 자아를 심어준다.	
	서로 분리된 세 명의 무용수는 목마름과 공허로 고통스러워하는 동작과 움직임으로 서로 컨택하면서 괴로워한다.	
	뒤를 보고 있던 무용수는 한 명이 센터로 나오자 하수에서 무용수가 따라 나와 센터에 선다. 목마름을 벗어나려 하지만 또다시 좌에 허우적거린다.	

3) 무대장치 및 조명

[표 5-4] . 1장 조명

구분	조명	세부 분석
1		USC에 3명의 무용수가 기대어 앉아 있고 TOP 조명과 블루조명을 사용하여 조도 25% 켜준다.
2		CS를 중심으로 좌, 우에 온 조명이 켜지고 엘로우 조명과 TOP 조명이 조도 20% 추가로 켜준다.
3		CS, DSC, DSL에 TOP 조명이 무용수에게 이동하고 기본색 조도 20% 배경 조명 블루 조도 5% 추가로 켜준다.
4		USC 센터조명 블루조명 조도 5% 유지하고 DSC 넓은 센터조명과 오렌지 조도 15% 풋조명을 추가한다.

3) 음악

1장에서는 ‘Farewell’, ‘Mother’, ‘가시나무’ 음악을 사용하여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주었고 허무의 감정에서는 살벌하면서 무디어져 있는 둔탁한 음악을 사용하여 작품의 무게감을 더했다. 영, 혼, 육이 분리되고 불안감, 허무감이 다시 밀려오는 장면에서는 대중가요인 ‘가시나무’의 음악을 사용하여 가사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 곡을 통해 고통과 갈등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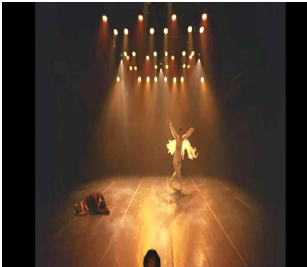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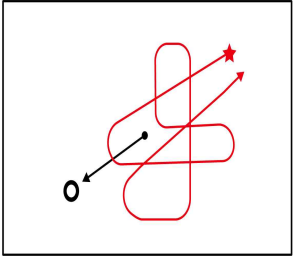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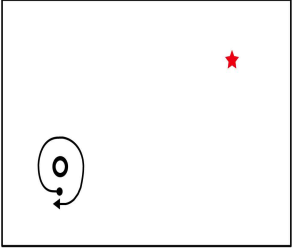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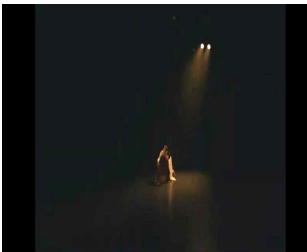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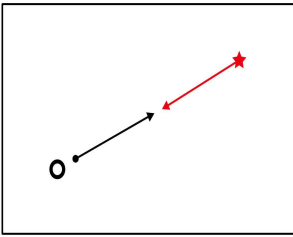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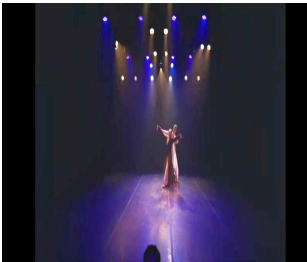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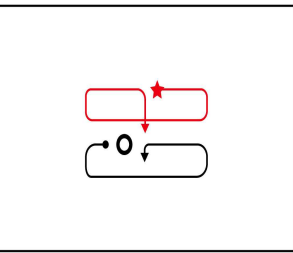
제 2 절 2 장 : 마르지 않는 샘을 찾아서

1) 내용 및 안무 의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이제는 죄의 옷을 벗고 새롭게 변화된 자녀의 모습을 표현한다.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끈을 수 없는 허무와 고통의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면서 자포자기로 쓰러져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향한 마음을 무용으로 표현하신다.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강한 의지와 사랑을 깊은 메시지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여인은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물 떨어지는 물소리와 시냇물의 효과음이 점점 커지면서 생명수가 공급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게 된다. 드디어 생명수를 찾은 여인은 믿음의 고백을 한다. 과거에 예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한 걸음씩 다가간다. 예수님은 여인을 일으키시면서 기뻐서 춤을 추신다.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며 이제 여인은 전도자가 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변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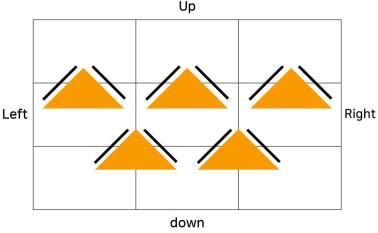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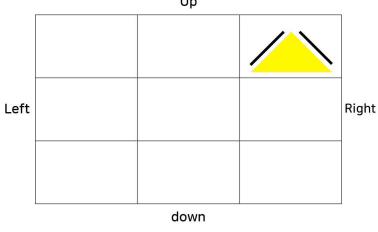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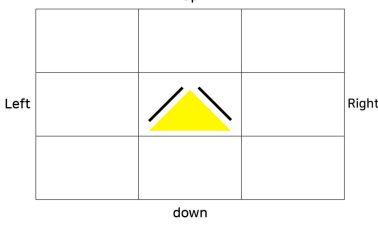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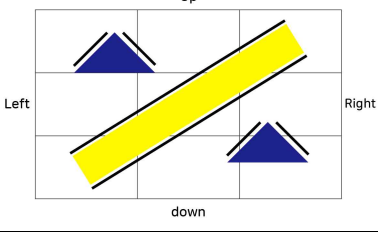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표 5-5] . 2장 세부 분석

장면	내용 설명	플로어 패턴
	예수님은 여인과 늘 함께하셨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표현하신다,	
	예수님은 쓰러져 있는 여인과 대각선으로 서서 여인에게 다가가 손 내미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신다.	
	여인은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에게 다가가 죄인 된 모습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여인을 일으키신다.	
	드디어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여인은 기뻐하며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고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한다.	

3) 무대장치 및 조명

[표 5-6] . 2장 조명

구분	조명	세부 분석
1		CS, DSC에 큰 타원형 느낌의 오렌지 조명과 조도 35% 켜지고 풋조명이 추가된다.
2		USL에 TOP 조명이 조도 20% 켜지고 엘로우 기본 조명 조도 5%가 추가되어 켜준다.
3		CS에 TOP 조명 조도 20% 배경 조명과 엘로우 기본 조도 5% 켜진다.
4		상수에서 하수 방향으로 블루 엘로우 사선 길조명이 조도 25% 켜진다.

4) 음악

3장에서는 외국 찬양곡인 ‘Rescue’를 사용하여 무게감 있는 목소리와 깊은 영혼이 담긴 목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었으며 음악의 잔잔한 울림이 깊이를 더 해주었다. 기도문 낭송의 독백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여인의 마음은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전도자로서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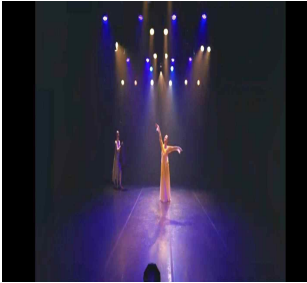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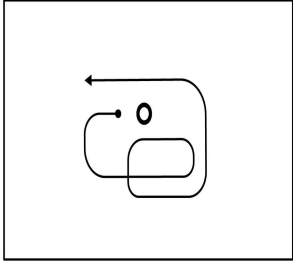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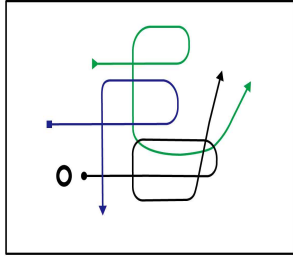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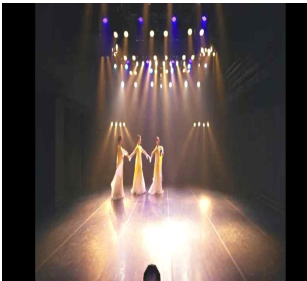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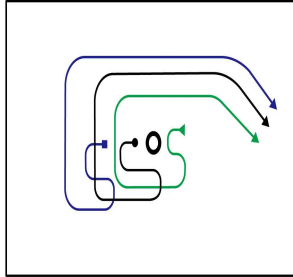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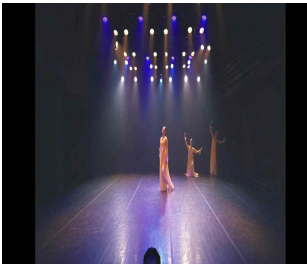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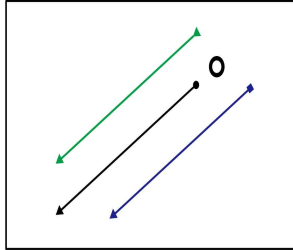
제 3 절 3 장 : 구원과 영생의 길

1) 내용 및 안무 의도

구원을 얻은 여인은 죄의 옷을 벗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다. 이는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노란색의 그라데이션 된 의상은 누에고치에서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모습으로 상징했다. 여인과 무용수들은 노란색의 실크를 사용하여 밝고 따뜻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손을 잡고 춤추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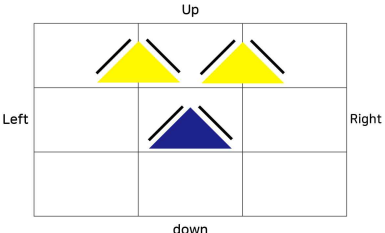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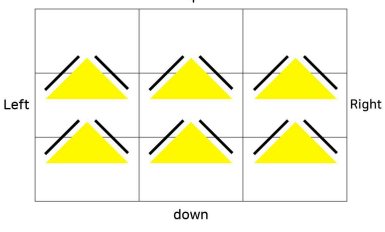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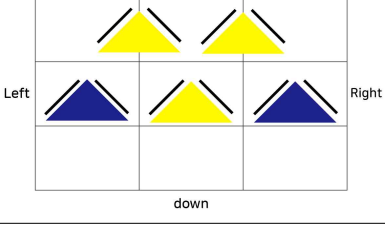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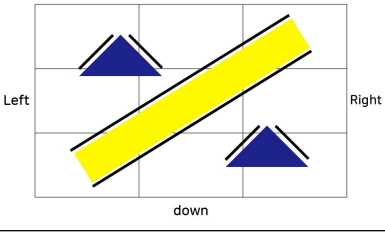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표 5-7] . 3장 세부 분석

장면	내용 설명	플로어 패턴
	여인은 드디어 죄의 옷을 벗고 거룩한 옷을 입는다. 구원을 얻은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독무로 춤을 춘다.	
	독무가 끝난 후에 무용수 2명과 함께 나비처럼 가볍고 경쾌하게 군무로 기쁨의 춤을 춘다.	
	무용수들은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처럼 원을 그리고 달팽이 모양도 만들면서 동선위주의 춤을 춘다,	
	마지막 장면은 한명씩 대각선으로 천국을 향해서 한걸음씩 걸어나간다.	

3) 무대장치 및 조명

[표 5-8] . 3장 조명

구분	조명	세부 분석
1		무용수가 센터에 서면 큰 TOP 조명과 앰버 옐로우 파란 조명 조도 35% 켜진다.
2		무용수 1명외에 2명의 무용수가 들어오면 큰 타원형 느낌의 옐로우 백색 조명이 조도 50% 켜진다.
3		CS중심에 옐로우 블루 조명 조도 35% 켜진다.
4		상수 업스테이지에서 하수 다운스테이지로 나갈 때 블루 옐로우 조명과 사선 방향으로 길조명 조도 25% 켜진다.

4) 음악

‘Home’이라는 따뜻하고 서정적인 음악은 천국의 모습과 밝은 빛의 느낌을 잘 전달해 주는 음악으로 미성의 어린이들이 부르는 맑고 깨끗한 목소리가 특징인데, 이는 천국을 향해 나가는 3장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며 천사들의 목소리처럼 평안과 기쁨이 묻어나는 음색은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음악의 사용에 많은 의미를 더해준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기독교 창작 무용 「마르지 않는 샘」에 대한 석사학위 청구 작품에 대한 분석연구로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목마름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영혼의 목마름과 허무감으로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생명수이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단절과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르지 않는 샘」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생수로 비유하였으며 예수님만이 인간 내면의 갈등과 욕구의 존재론적인 필요 즉 사랑의 의미와 회복을 통한 구원을 말하고자 하였다.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물을 구하러 온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로 본인을 소개한 예수님처럼 ‘쉽’없이 생수를 찾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해결책인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영혼 구원과 증인된 삶의 중요성을 조명하는데 의미가 있다.

본 작품 「마르지 않는 샘」은 3장으로 구성되었고 소요시간은 16분 52초이며 짜임새 있는 구성과 메시지 전달에 중점을 두었다.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을 모티브로 하여 무용극과 같은 스토리 전개와 한국 창작 무용으로 안무했다. 주제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주제에 어울리는 음악이나 감정표현을 위해서 조명을 사용하였고, 관객들이 생수와 회복 그리고 구원이라는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무자의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게 하였다.

첫째는 인생의 목마름과 허무의 문제를 갖고 있던 여인을 모티브로 삼아 기독교의 핵심가치인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고 싶었다.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끊임없는 목마름과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며 그 핵심가치가 본 작품에서는 생수로 묘사하였다. 육적인 목마름이나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은 결국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있다.

셋째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스토리 전개와 안무를 통해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게 하였으며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느끼며 공감할 수 있게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질주의와 중독, 탐닉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허무와 공허를 채우기 위해 술, 마약, 섹스, 그리고 과도한 인터넷 쇼핑을 의존한다. 이런 행동은 일시적으로 그들의 감정을 달래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킨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목표와 비전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기독교 무용은 교회 무용과 기독교 예술 무용의 두 분야로 구분된다. 교회 무용은 교회의 모든 행사나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무용인 반면, 기독교 예술 무용은 보다 높은 차원의 예술성을 추구하며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무용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공감할 수 있는 감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기독교 예술 무용이 더욱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기독교 무용 예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무대와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족은 기독교 무용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기독교 무용 예술인들을 위한 전문 공연장이 마련된다면, 기독교 무용 예술이 더욱 풍성해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기독교 문화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증가하기를 기대하며 기독교 무용 석사학위 청구 작품을 마치면서 깨닫게 되었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강석오. (1990). 『성서의 풍토와 역사』. 서울: 종로서적.
- 강익재. (2003). 『물의 중요성과 여름철 음수 관리』. 서울: 養豚. D. A. Carson.
- (1993). 『요한복음』. 서울: 성서유니온.
- 노희원. (1998). 『구약성서의 중심으로서의 생명 사상』. 서울: 신학 논총.
- 두란노. (2015). 『예수님의 정체성』. 서울: 두란노.
- 박명우. (2007).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석사학위 논문. 서울신학대학교.
- 박재우. (2005).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독교론과 종말론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배충의. (2013).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곱 가지 정체성』. 서울: 엘맨출판사.
- 방안전. (1990). 『팔레스틴의 지리』. 서울: 대한 기독교성회.
- 이보영. (2019).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가치 차원에서의 한국인 세대간 차이”.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송영목. (2013). 『간음하다 잡힌 여자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정체성』.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
- 이상훈. (1999) 『요한복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이진석. (2018). “왜 물질주의가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높이는가?”. 서울: 소비문화연구.
- 안은경. (2011).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무용』. 서울: 일오삼 출판사.
- 윤성현. (2008). “현대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전종국. (2009).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유”. 한국 카운슬러협회. p11.
- 한병철. (2010).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 Jones. (2006). 『The Charis Bible Commentary』. 서울: 기독지혜사.
- Wai-ye NG. (2000). 『The Oxford Bible Interpreter』. 서울: 제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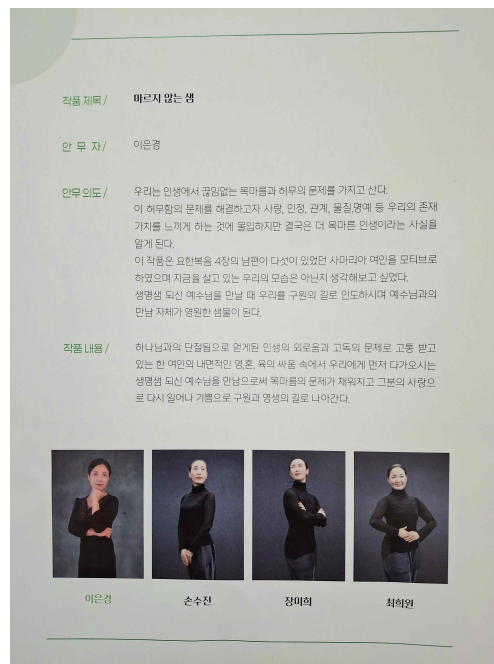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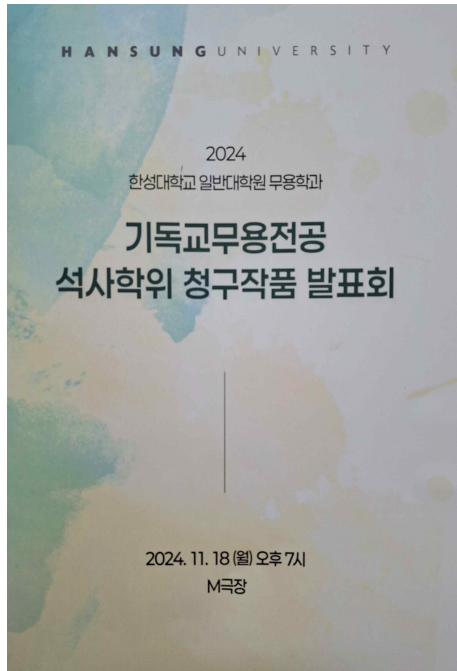
G. R. Beasley-Murray. (2001). 『WordBiblical Commentary』 . 서울:솔로몬.

부록

1.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마르지 않는 샘」
일시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M극장
안무	이은경
음악	‘Farewell’, ‘Mother’, ‘가시나무’ ‘Rescue’, ‘Home’
출연	이은경, 손수진, 장미희, 최희원
의상	유앙젤리온 무대의상
조명디자인	강현석
주최	한성대학교
소요시간	16분 52초

2. 공연 팸플렛



ABSTRACT

A Study on Christian Creative Dance 「The Never-Drying Spring」

Lee, Eun-Kyung

Major in Christian D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The never-drying spring” and is a work on thirst presented to people living in the modern era. By comparing the essential approach to Jesus’ identity to living water, the researcher wanted to present an answer to those who are wandering around the problem of emptiness and futility. It is difficult to find true rest for those living with regret and guilt for the past and those living under unknown anxiety about the future. An unstable state without true rest deteriorates the quality of life mentally and physically and makes people sick. The Bible says that these problems are the result of the state of disconnection from God due to human sins. Corrupted

humans live struggling to solve the problem of emptiness and futility in the process of pursuing desire, material things, honor, and power.

This study expressed the identity of who Jesus is through the spiritual meaning of living water that quenches thirst, and emphasized that Jesus is the only answer that can quench the inner thirst and desires of humans, and that he is the essence of salvation that can provide ontological needs such as love, meaning, and purpose of life. Using the Samaritan woman as a motif, the researcher want to inform people that the way to resolve their inner thirst is to meet Jesus, the living water. When humans meet Jesus, who approaches them who have been cut off by sin, their problems can be resolved.

This study deals with the story of the meeting between God, who came to us with love, and the Samaritan woman. When humans welcome and receive Jesus, their identity as children of God can be restored, and they can quench their thirst by drinking the water He gives them. Through the concept of living water, the researcher wants to introduce Jesus, the true solution to problems for modern people living today, and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vangelism and missions.

This work, “The never-drying spring” consists of three chapters and takes 16 minutes and 52 seconds, and focuses on a well-organized composition and message delivery. Based on the Samaritan woman in the Bible, the story unfolds like a dance drama and is choreographed using modern dance and creative Korean dance. The music and lighting that fit the piece of work help effectively direct the scenes and help the audience concentrate, allowing the choreographer's intentions to be conveyed well.

Chapter 1 consists of the process in which the spirit, soul, and body, which are one, are separated and fight each other due to different desires. The meaning of being one but different is emphasized in the different colors of the one sleeve, and a dark and dull toned-down

purple costume and patterns that represent a string tied to a chain are used.

Chapter 2 expresses the love and strong will of Jesus who comes to save the woman who has collapsed in pain. In order to give the effect of the main movement of flapping wings, a costume made of silk was used to achieve a dramatic effect of the movement.

Chapter 3 expresses the joy of salvation and recovery by taking off the clothes of sin and putting on the clothes of righteousness. The bright yellow costume symbolizes the transformation from a cocoon to a butterfly, symbolizing the rebirth of life. The music gives a feeling reminiscent of heaven by using the clear and clean voices of children, and quick, briskly choreographed movements express the joy of salvation.

Through “The Never-drying Spring,” the researcher attempted to convey to the audience the meaning of thirst, salvation, and recovery by connecting them with the love of Jesus, and to convey the message of hope of living water to those who long to fill their emptiness and thirst.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and development of Christian dance.

【Key Words】 Christian dance, Jesus identity, Materialism, Addiction,
Living water